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 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동부, 교섭절차 규정 보완
개정노조법 내년 3월10일 시행

교섭, 원청 사업자 단위 기준 진행
개별교섭·공동교섭 합의면 ‘허용’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해 개정된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하청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노조 특성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해 별도로 교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은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을 허용해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으나,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섭 절차에 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정 노동법 하위 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사 의견을 반영한 TF를 운영해 시행령 정비에 착수했다. 그 결과 마련된 원칙은 ‘하청노조 교섭권을 원청노조가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장한다’는 점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교섭은 기본적으로 원청 사업자 단위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다만 원청과 하청노조가 자

율적으로 개별교섭 또는 공동교섭에 합의하면 그 방식도 허용된다. 정부는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지원한다.

문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원칙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를 분리하는 것이다. 사용자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 단계는 하청노조 간 분리다. 합의가 되면 합의안을 따르되, 합의가 안 되면 노동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노동부는 분리 예시로 ▲개별 하청별 분리 ▲직무 등 유사 하청별 분리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 등으로 제시했다. 개별 하청별 분리는 직무,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의 차이가 뚜렷할 때 따로 분리하는 방식이다. 또 직무가 유사한 하청노조끼리 묶어 분리하거나, 전체 하청의 직무 등이 비슷하다면 한번에 묶어 교섭할 수 있다.

이후에는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새롭게 진행된다. 정부는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섭단위 분리와 교섭창구단일화가 진행되기 위해선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이 우선 인정돼야 한다. 일부 근로조건이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다면 원청은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성 판단은

노동위원회가 한다.

다만 원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안하을 경우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가 이뤄진다. 또 사용자성 범위를 두고 노사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가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용자성 판단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매뉴얼을 마련해 노사 협의 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찾아진다면 입법예고 제도 취지에 따라 개정안을 반영해 최종 확정하겠다”며 “원·하청 간 교섭절차 정착을 위해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 등 진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산물 알뜰 플랫폼’ 민생 프로젝트 선정

농식품부, AI가 유통사 가격정보 분석
소비자에 최적 구매처 추천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알뜰소비정보 플랫폼’이 정부의 ‘인공지능(AI) 민생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이는 대형마트·직매장 등 주요 유통업체의 가격 정보를 AI가 분석해 소비자에게 최적의 구매처를 추천하는 서비스이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는 체감형 공공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과제가 공개됐다.

이번에 선정된 농산물 알뜰소비정보 플랫폼은 대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주요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농산물 가격 정보를 기반으로 AI가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 동향을 분석하고 소비자에

게 근처에 있는 판매처별 가격을 비교해 최적의 구매처를 추천해주는 등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대국민 가격 비교 정보 앱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농산물 알뜰소비정보 플랫폼은 내년 초 개발 용역에 착수해 하반기 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출시될 예정이다. 2027년에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레시피 연계 식재료 추천 기능을 도입하는 등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9월 9일 제41회 국무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활용해 원하는 요리에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가격 비교 후 어디에서 주문하면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플랫폼 구축 기반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였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소비·생활, 사회 안전, 국민 편의 등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공공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내 삶을 바꾸는 AI’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국민 인식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대 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알뜰 소비 정보 플랫폼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전반적인 농산물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라며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서부발전, 우수中企 유럽 판로개척 도와

10개 기업과 ‘엔릿 유럽 전시회’ 참가

한국서부발전이 국내 우수중소기업과 유럽 최대 전력 전시회에 참가해 국내 기술을 세계 시장에 소개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서부발전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스페인 빌바오에서 개최된 ‘2025 엔릿 유럽 전시회’에 국내 중소기업 10개사와 함께 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엔릿 유럽 전시회는 에너지 산업 분야의 유럽 최대 규모 전시회로 올해는 30여개국, 100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1만8000여명의 바이어가 참관했다.

서부발전은 국내 발전공기업 6사가 참

여한 한국 공동관 운영을 주관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현지 바이어에게 직접 소개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참여 중소기업은 전력·플랜트·기자재 분야별로 제품 설명을 진행해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및 계약 논의를 활발히 진행했다.

그 결과 수출상담액 5610만 달러, 계약추진액 1240만 달러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참여기업인 삼신벨브는 이번 전시회에서 11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유럽진출의 결실을 맺었다.

서부발전은 올해 네덜란드 국가관과의 교류회도 별도로 마련해 중소기업에

유럽 내 네트워크 확대와 추가 협력의 기회도 제공했다.

21일에는 현지 코트라 무역관 주관 스페인 전력인프라 진출 설명회에 참석해 시장동향 분석 및 중소기업의 유럽 진출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서부발전은 이번 전시 참여를 비롯해 수출 역량강화 교육, 해외인증 취득 등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도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 등 대상 국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해외 판로개척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경현 한국서부발전 조달협력처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동반 성장의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우자조금, 외국인 관광객에 ‘한우’ 알려

“韓 여행 대표미식 자리잡게 노력”

한우 알리기에 관광업계도 힘을 보탠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주 여행사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대상의 한우 시식경험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4일 한우자조금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여행·관광 일정 속에서 한우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방안 ▲관광상품 및 서비스와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서는 30여 년간 한우 맛을 알려진 윤원석 조리장이 한우고기의 역사·품질 등을 설명한 뒤 커팅을 시연했다. 윤 조리장은 각 부위의 맛과 특징을 비롯해 외국인 앞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설명포인트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한 참석자는 “외국인 고객에게 한우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관광 프로그램과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는 한우 체험상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벚계갈비방 이본점에서 이번 간담회는 방한 외국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에서 여행·호텔업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한우자조금

관광객 수가 늘어남에 따라 한우의 글로벌 소비기반 강화 및 관광객 유입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여행·호텔업계와 서울시 관광산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한우 체험 확대는 한우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중요한 전략 과제”라며 “앞으로도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오면 반드시 경험해야 할 대표 미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기후부, 물산업 혁신형 유니콘 발굴 나서

오늘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최종 경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울 ‘혁신형 고성장 기업(유니콘)’을 발굴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이달 25일 서울 노보텔엠버서더 호텔에서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2025’ 최종 경연을 연다.

기후위기 심화로 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 물시장 규모는 올해 기준 148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시장의 성장은 지능형 기반시설 투자 증가,

지속가능한 물순환 기술 수요 확대, 수자원 관리 기술 확산 등이 견인하고 있다.

기후부는 물산업을 향후 10년을 이끌 신성장 분야로 보고 2020년부터 혁신 기술을 가진 새싹기업과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는 창업대전을 운영해 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대전은 8월 25일 공모를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의 ‘아이디어 부문’과 창업기업 대상의 ‘사업화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총 80개 팀이 참여해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18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세종=김연세 기자